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1권 제1호 (2022년 4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1권 제1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2년 4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1권 제1호 / 2022. 4.

대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타인승인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상태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성원 · 하정희 · 정은선 / 1

한국판 퍼빙 척도(PS-K)의 타당화……김민범 · 최재광 · 송원영 / 15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정체감을 중심으로……정선아 · 강민수 / 41

삶의 의미와 정신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문제중심 대처의 매개효과:
외상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최수연 · 옥정 / 61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동향과 미래 과제 개관
……이은영 · 김은석 / 81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1, 15-40
DOI: 10.22839/adp.2022.11.1.15

한국판 퍼빙 척도(PS-K)의 타당화

김 민 범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최 재 광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 문제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퍼빙(phubbing) 행동을 측정하고자 Chotpitayasunondh와 Douglas의 Generic Scale of Phubbing와 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를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로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척도를 번역하고, 성인 13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성인 30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진행 하였다. 분석 결과, 퍼빙행동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립, 문제인식),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퍼빙경험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규범인식, 무시당하는 기분, 대인관계 충돌),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합치도는 퍼빙행동 척도는 전체 문항 α=.92, 하위요인은 α=.80~.92 범위로 나타났으며, 퍼빙경험 척도는 α=.95, 하위요인은 α=.91~.9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하였다. 퍼빙행동 척도는 파트너 퍼빙 척도,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척도(SAS-SV), 그리고 분열형성격장애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퍼빙경험 척도는 사회성 유대감척도와 편집성 척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였다. 퍼빙행동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퍼빙경험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퍼빙 척도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특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향후 이 척도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퍼빙행동, 퍼빙경험,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번지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041) 730-5414, 1058@paran.com

새로운 정보통신 및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성장으로 인한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인터넷 검색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대인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빠르게 대중화가 이루어졌다(Park, Kim, Shon & Shim, 2013). 스마트폰의 등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이 더해졌으며, 개인 특성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현대인들의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키게 되었다(금희조, 조재호, 2010;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미디어 보유율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휴대폰 보유율은 2011년 89.2%에서 2019년에는 96.5%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중 90%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46%에 달한다(Smith, McGeeney & Duggan, 2015).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vice; SNS)와 문자메시지 기능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 대 다수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SNS는 2019년 기준 총 인구의 47.7% 이상인 약 246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기능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현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관심과 확산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연결의 욕구'는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홍구표, 2017).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Katz & Aakhus, 2002), 의사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었다(Cambell, 2008).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높아진 필요성만큼 과도한 이용은 인터넷 및 게임 중독으로 이어졌으며(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치료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김동일 등 2012; Bian & Leung, 2015).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노모포비아'(윤지현, 박근희, 홍혜영, 2020), SNS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인관계 중독'(박성복, 황하성, 2014) 등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제 중 주목할 것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관계형성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현실세계의 사회적 관계 축소 또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석기, 2005; 박은숙, 2009; 이만제, 2009).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 부적응과 교우관계 문제를 야기하며(주석진, 조성심, 2015),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타인과 소통에 응하지 않는 고립적인 모습을 보인다(김영민, 임영식, 2012).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으며(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될 경우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년, 2013). 성인과 고연령층의 스마트폰의 과의존 위험군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를 겪는 연령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9).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인 스마트폰이 역설적으

로 대화를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Karadağ et al., 2015)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는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는다(서경현, 조성현, 2013).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피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용어로 퍼빙(Phubb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퍼빙이라는 개념은 호주의 맥쿼리 딕셔너리(Macquarie dictionary) 출판사에서 'Phone'과 'snub'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개념으로 '휴대전화'와 '무시하다'의 의미가 합쳐진 용어이다.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로, 이미 현대인의 대인관계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Abeele, Antheunis & Schouten, 2016; 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퍼빙의 개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문제로 퍼버(Phubber)와 퍼비(Phubbee)로 구분된다(Karadağ et al., 2015). 퍼버는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무시하는 행위자를 나타내며, 퍼비는 상대방이 자신과 상호작용하기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인해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2018). 퍼버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최신정보에 끊임없이 유혹받고, 나만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과 같은 강박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고, 이런 경향이 심해질수록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된다(Chotpitayasounondh & Douglas, 2016). 퍼버는 과도한 지루함이나 외로움 등의 감정을 조절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Elhai, Levine, Alafnan, Aldraiweesh & Hall, 2018) 정서적 의존과 연관된다(Elhai, Levine & Hall, 2017). Karadağ(2016)은 퍼빙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세계 몰입하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관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게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했던 기능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퍼빙은 가상중독(Virtual Addiction)의 종합체라 할 수도 있다(Karadağ et al., 2016).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는 퍼빙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퍼빙척도를 개발하였다. 퍼빙척도는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으로 '노모포비아(Nomophobia)', '대인관계충돌(Interpersonal conflict)', '자기고립(Self-isolation)', '문제인식(Problem acknowledgemen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면 '노모포비아'는 No Mobile-Phone phobia의 줄임말로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을 때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인관계 충돌'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고립'은 사회활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문제인식'은 퍼버가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무시하는 퍼버와의 관계에서 공감 부족과 감정적인 연결 부족을 경험한다(Abeele, Antheunis & Schouten, 2016;

Nakamura, 2015). 퍼비는 파트너를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퍼버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소나 질투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파트너와의 관계만족을 저하시킨다(McDaniel & Conye, 2016; Roberts & David, 2016).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 직장 상급자와 하급자(Roberts & David, 2016), 친구관계(Krasnova, Abramova, Notter & Baumann, 2016) 등 다양한 관계에서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문제, 심리정서 문제,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적 우울의 문제를 초래한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 Roberts & David, 2016). 즉, 개인의 대인관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문제나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는 퍼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퍼비척도를 개발하였다. 퍼비척도는 '규범인식(Perceived norms)', '무시당하는 기분(Feeling ignored)', '대인관계 충돌(Interpersonal conflict)'로 구성된다. '규범인식'은 상대방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무시를 당하는 경험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충돌'은 상대방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갈등 경험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는 이미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일이지만, 퍼빙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정립되어 국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는 퍼빙을 소개하고 측정하는 몇몇 척도가 개발되었다. Roberts와 David(2016)은 파트너 퍼빙척도(Partner Phubbing scale; Pphubbing), 상사 퍼빙척도(Boss phubbing; Bphubbing)와 같이 특정 대인관계에서 퍼비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이 척도들은 파트너 관계나 상급자-하급자 간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는 매우 유용한 반면,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Karadağ 등(2015)이 개발한 The Phubbing Scales는 타인과 소통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설명하고자 만든 척도이다. 이 척도는 퍼버의 행동을 대인관계에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소통 장애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강박인 2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는 퍼버와 퍼비를 구분하여 두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퍼버의 행동을 측정하는 퍼빙행동 척도(Generic Scale of Phubbing; GSP), 반대로 의사소통 대상이 스마트폰 사용함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입장을 측정하는 퍼빙경험 척도(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 GSBP)를 개발하였다. GSP는 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립, 문제인식의 4가지 요인을 측정하며, GSBP는 규범인식, 무시당하는 기분, 대인관계 충돌의 3가지 요인을 측정한다.

이러한 척도들을 사용한 퍼빙 관련 연구들은 주로 퍼버로 인해 퍼비에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퍼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퍼비에게 대화의 질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 Nakamura, 2015; Przybylski & Weinstein, 2013), 그 결과 관계만족도 저하와 우울(Roberts &

David, 2016; Wang, Xie, Wang, Wang & Lei, 2017)을 경험한다. 또한, 퍼버의 퍼빙행동에 대한 연구로 퍼버는 인터넷 중독, 자기통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스마트 기기와 친숙하고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약 1700만 명으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낼 정도여서(Kalogeropoulos, Suiter, Udris & Eisenegger, 2019), 점차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일상화되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방과 대화 도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이광열, 2017)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또는 번안, 타당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20~40대의 성인들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Baby boomer 등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로 급격한 사회기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개인 및 세대 간에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신기술 수용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적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선호하고 기성세대와 다른 이용패턴을 갖기 때문이다(Deal, Altman & Rogelberg, 2010; Hershatter & Epstein, 2010). 새로운 세대들은 출생과 더불어 노출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서 기성세대가 되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릴 적 노출되는 기술에 따라 학창생활, 직장생활,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 직접적인 차이를 일으킨다(Huock, 2011). 따라서 현재 20~40대 성인들은 직접적인 사회기술 변화를 겪은 세대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탐색 및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현상인 퍼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 타당화한 척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40대의 성인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인 퍼빙 현상을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퍼버와 퍼비의 경험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최근 개발된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의 Generic of Scale of Phubbing와 Generic of Scale Being Phubbed를 소개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인을 받았고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KYU-2021-023-01).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분석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대상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비밀보장의 원칙 등 윤리규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뒤 수집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1을 위한 조사는 2021년 6월 첫 주에 시작하여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여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서울, 충남, 부산에 거주 중인 전국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총 13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차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21년 7월 첫 주에

시작하여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설문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전국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남성이 146명(48.5%), 여성이 155명(51.5%)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118명(39.2%), 30대 93명(30.9%), 40대 90명(29.9%)이었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미만 사용이 3명(1.0%), 1~4시간 미만 사용 123명(40.9%), 4~7시간 미만 사용 114명(37.9%), 7시간 이상 사용이 61명(20.3%)이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주로 소통하는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 26명(8.6%), 형제 23명(7.6%), 친구 158명(52.5%), 교사 또는 상사 17명(5.6%), 연인관계 77명(25.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차 연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퍼빙 척도(Korean Phubbing Scale; PS-K)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더 많이 하는 퍼버의 행동을 측정하는 퍼빙행동 척도(Generic Scale of Phubbing; GSP)와 의사소통 대상이 스마트폰 사용함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입장을 측정

표1. 연구 2의 인구통계학적 자료(N=301)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46	48.5
	여	155	51.5
연령	20대	118	39.2
	30대	93	30.9
	40대	90	29.9
직업	생산직	6	2.0
	판매/가눙직	11	3.7
	사무/기술직	95	31.6
	경영관리직	7	2.3
	전문직	61	20.3
	무직	8	2.7
	전업주부	17	5.6
	학생	77	25.6
	자영업	9	3.0
	기타	10	3.3
하루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3	1.0
	1~4시간 미만	123	40.9
	4~7시간 미만	114	37.9
	7시간 이상	61	20.3
사용용도	메시지	95	31.6
	유튜브	93	30.9
	엔터테인먼트	41	13.6
	SNS	21	7.0
	금융	21	7.0
	뉴스/생활정보	7	2.3
	위치/지도	2	.7
	음악	3	1.0
	교육	4	1.3
	쇼핑//여행	6	2.0
	건강관리	3	1.0
	켜뮤니티	5	1.7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소통하는 관계	부모	26	8.6
	형제	23	7.6
	친구	158	52.5
	교사/상사	17	5.6
	연인관계	77	25.6

하는 퍼빙경험 척도(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 GSBP)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퍼빙행동 척도는 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립, 문제인식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퍼빙경험 척도는 규범인식, 무시당하는 기분, 대인관계 충돌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자주 그렇다(6점) 로 평정하는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퍼빙행동 또는 퍼빙경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3, .96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2, .95였다.

파트너 퍼빙척도(The Parthner Phubbing Scale; Pphubbing)

이 연구에서 사용된 퍼빙척도는 Roberts 등(2016)이 파트너의 퍼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파트너 퍼빙척도를 이광열(201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파트너 퍼빙척도는 퍼비의 입장에서 퍼버의 퍼빙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파트너 퍼빙척도는 자신이 느끼는 연인의 퍼빙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다(1점)~자주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의 퍼빙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oberts(20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고 이광열(2017)의 수정된 파트너 퍼빙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93였다.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로 Kwon 등(2013)이 개발한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 지향관계, 과사용, 긍정적 기대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SAS)를 기초로 한 단축형(SAS-SV)이며 자기보고식이다. Kwon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90였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은 분열형 성격장애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Raine과 Benishay(1995)가 개발하고 윤선아(2010)가 국내에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인지-지각 결함, 기능 와해 등 총 4개로 나누어져있다.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열형 성격장애의 특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선아(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96였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적 유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Lee와 Robbins(1995)는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를 개발하고, R. M. Lee 등(2001)이 '소속과 대인

관계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개념화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11문항, 사회적 비유대감 9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6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비유대감은 역채점하여 결과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세부적인 유대감과 퍼빙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요인을 나누어 확인하고자 한다. Lee(2001)번안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4였다.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

편집성 척도(Paranoiad scale)은 Fenigstein과 Vanalble(1992)이 편집증적 성향을 측정하고자 개발하고 이훈진, 원훈택(1995)가 번안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척도는 20개의 MMPI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총 20문항의 0~4점의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점수는 0점부터 80점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편집성향이 높음을 반영한다. 이훈진, 원훈택(1995)의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는 .82였다.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 한국판 퍼빙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척도번역과정으로 먼저 척도의 원저자인 Chotpitayasunondh와 Douglas에게 메일을 보냈고 허락을 받았다. 이후 번역을 위해 연구진이 1차 번역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심리를 전공한 이후 캐나다에서 통번역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번역가에게 2차 번역을 의뢰하였다. 다음으로 영문학 전공자를 통해 역번역을 진행한 이후 원저자에게 검토를 받아 연구진 회의 후 번역을 마무리하였다.

둘째, 연구 1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을 진행한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2를 위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 2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을 진행한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척도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준거 및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1개월을 간격으로 진행한 퍼빙행동 척도 및 퍼빙경험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3과 AMOS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회전방식으로는 직접 오블리민을 활용하였다. 둘째,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넷째, 척도의 준거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표 2.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퍼빙행동 척도	1.07	6.80	3.27	1.09	.51	.47
노모포비아	1.00	7.00	4.33	1.36	-.02	-.65
대인관계 충돌	1.00	7.00	4.31	1.47	-.59	-.20
자기고립	1.00	6.75	2.14	1.26	1.37	1.59
문제의식	1.00	6.75	2.55	1.47	.84	-.15
퍼빙경험 척도	1.00	6.59	3.70	1.18	.22	-.25
규범인식	1.00	7.00	4.70	1.20	-.45	.10
무시당하는 기분	1.00	7.00	3.22	1.51	.45	-.48
대인관계 충돌	1.00	6.80	2.67	1.45	.85	.06

확인하기 위해 이광열(2017)이 번역하여 사용한 파트너 퍼빙척도,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 사회적 유대감 척도,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 편집성 척도를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1

기술통계 분석

연구 1에서 수집된 136명의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들의 최소값은 1.00과 1.07이었고 최대값은 6.59~7.0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평균은 최소 2.14에서 최대 4.70로 분포되었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로 나타났고 최대값이 1.37이였으며, 첨도는 모두 절대값 2 이하로 나타났고, 최대값이 1.59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퍼빙행동 척도의 4요인(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립, 문제인식)과 퍼빙경험 척도의 3요인(규범인식, 무시당하는 기분, 대인관계 충돌)은 이론적 배경에 부합한 결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세부적인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퍼빙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15개의 문항에 대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92의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KMO(Kaiser- Meyer-Olkin)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Oblimin)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으로 나타나는 추출되는 요인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Chotpitayasunondh와 Douglas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대인관계 충돌과 자기고립이 같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라

표 3. 퍼빙행동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0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	.862				.923
11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분이 좋다.	.836				
1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끄고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807				
9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626				
1	나는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830			.844
2	나는 절대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726			
4	스마트폰을 틈틈이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걱정이 들곤 한다.		.707			
3	나는 스마트폰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둔다.		.659			
15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냥, 조금만 더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882		.796
13	나는 의도한 것보다 더 긴 시간동안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이단			-.788		
14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501		
5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한다.				-.806	.882
6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마트폰과 너무 많이 상호작용한다고 이야기 한다.				-.657	
7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마트폰을 끄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짜증난다.				-.623	
8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게 한다 해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465	
	고유값	7.102	2.266	1.329	.829	
	설명분산	47.346	15.108	8.861	5.530	
	누적분산	47.346	62.454	71.316	76.845	

주. 요인1=자기고립, 요인2=노모포비아, 요인3=문제인식, 요인4=대인관계 충돌

표 4. 퍼빙경험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14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932			.970
17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주의를 돌린다.	.914			
15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다.	.900			
1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다.	.897			
12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스마트폰에 주의를 기울여 지루함을 해소하는 것 같다.	.885			
16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신경을 쓰는 대신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 기분이 좋아보인다.	.822			
11	다른 사람들은 나와 대화를 나눈 것보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807			
10	다른 사람들은 나와 대화를 하기보다 그들의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700			
6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904		.912
7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889		
9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759		
4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741		
8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세상”에 빠지는 것 같다.		.644		
5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주변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571		
3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		.546		
2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 접속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같다.		.489		
21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895	.903
20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768	
22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끄고 나와 대화하기를 요청하면 짜증내는 것 같다.			.719	
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618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너무 많이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536	
	고유값	11.497	2.437	1.497	
	설명분산	54.749	11.603	7.127	
	누적분산	54.749	66.351	73.478	

주. 요인1=무시당하는 기분, 요인2=규범인식, 요인3=대인관계 충돌

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을 본다면 갈등과 회피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4번째 요인의 고유값이 .83으로 1과 근접한 값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위요인을 4개로 고정하여 요인을 다시 추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KMO값은 .925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846.540(p<.001)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4요인은 입력된 전체 문항을 76.845%를 설명하고, 추출된 적재값은 68.67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은 Chotpitayasunondh와 Douglas의 퍼빙행동 척도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구분되었다. 구분된 요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노모포비아, 대인관계 충돌, 자기고립, 문제인식으로 설정하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844, .882, .923, .796으로 나타났다(표 3).

두 번째로 퍼빙경험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22개의 문항에 대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22개의 문항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30미만으로 상관이 낮게 보고되는 1개의 문항('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의 새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 같다')을 삭제하여 총 21개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KMO(Kaiser-Meyer- Olkin)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접 오블리민(Oblimin)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으로 나타나는 추출된 요인이 3개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때 KMO값은 .929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740.882(p<.001)로 나타났다. 탐색

표 5. 퍼빙행동 및 퍼빙경험 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301)

		퍼빙행동 척도					퍼빙경험 척도			
		합	NP	IC1	SI	PA	합	PN	FI	IC2
퍼빙행동	합	1								
	NP	.736**	1							
	IC1	.846**	.479**	1						
	SI	.872**	.416**	.775**	1					
	PA	.736**	.488**	.402**	.541**	1				
퍼빙경험	합	.570**	.378**	.492**	.566**	.363**	1			
	PN	.397**	.397**	.220**	.298**	.373**	.809**	1		
	FI	.534**	.286**	.495**	.591**	.299**	.917**	.591**	1	
	IC2	.512**	.271**	.554**	.539**	.230**	.779**	.411**	.657**	1
평균		3.31	4.29	2.42	2.71	3.95	3.77	4.56	3.51	2.93
표준편차		1.09	1.25	1.30	1.46	1.46	1.10	1.16	1.42	1.36
왜도		.41	.01	.91	.62	-.43	.03	-.32	.12	.57
첨도		.10	-.48	.23	-.44	-.47	-.17	-.11	-.60	-.29

NP 노모포비아, IC1 대인관계충돌, SI 자기 고립, PA 문제인식, PN 규범인식, FI 무시당하는 기분, IC2 대인관계충돌

**p<.01

적 요인 분석으로 추출된 3요인은 입력된 전체 문항을 73.478%를 설명하고, 추출된 적재값은 68.523%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은 Chotpitayasunondh와 Douglas의 퍼빙행동 척도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구분되었으며, 구분된 요인은 무시당하는 기분, 규범인식, 대인관계 충돌으로 설정하였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970, .912, .903으로 나타났다(표 4).

연구 2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추출된 하위요인들의 측정모형을 확인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01명의 남녀에게 연구 1을 통해 확정된 문항을 설문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 그리고 하위요인 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확인적 요인분석

퍼빙행동 척도 중 우선 퍼빙행동 척도의 요인구조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퍼빙행동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모포비아는 .82, 대인관계 충돌은 .89, 자기고립은 .92, 문제인식은 .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퍼빙행동 척도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퍼빙행동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s; *AVE*)을 실시하였다. *AVE*는 .50 이상의 값을 보고할 때 타당하다고 해설할 수 있으며 퍼빙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5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이러한 결과는 퍼빙행동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각 문항과 타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은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인을 통해 4개의 잠재변인을 설정하였고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는 *TLI, CFI, RMSEA*를 참고하여 구성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TLI*와 *CFI*는 .90 이상의 값을, *RMSEA*는 .05 ~ .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적합도로 볼 수 있고(배병렬, 2017; 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Steiger(1990)는 *RMSEA*의 범위를 .10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퍼빙행동 척도의 적협도는 X^2= 268.776, *TLI*=.924, *CFI*=.940, *RMSEA*=.086로 *RMSEA*가 다소 높지만 허용 가능한 값이며, 이러한 결과는 퍼빙행동 척도의 구조모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퍼빙경험 척도의 요인구조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퍼빙경험 척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범인식은 .91, 무시당하는 기분은 .97, 대인관계 충돌은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퍼빙경험 척도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

표 6.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내적합치도(N=301)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n=42) 결과

하위 요인	문항	B	β	$S.E.$	$C.R.$	AVE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검사-재검사 신뢰도
퍼빙행동							.92	.89**
노모포비아	n1	1.00	.85			.54	.82	.87**
	n2	.90	.74	.07	13.48***			
	n3	.46	.54	.05	9.55***			
	n4	.95	.78	.07	14.29***			
대인관계 충돌	n5	1.00	.75			.65	.89	.75**
	n6	1.06	.71	.07	15.45***			
	n7	1.21	.87	.08	15.53***			
	n8	1.21	.89	.08	15.98***			
자기고립	n9	1.00	.77			.74	.92	.82**
	n10	1.06	.87	.06	15.52***			
	n11	1.10	.88	.07	16.89***			
	n12	1.13	.92	.06	17.68			
문제인식	n13	1.00	.83			.60	.80	.89**
	n14	.69	.58	.07	10.04***			
	n15	1.06	.87	.07	14.85***			
퍼빙경험							.95	.79**
규범인식	n1	1.00	.45			.55	.91	.76**
	n2	1.00	.50	.16	6.31***			
	n3	1.77	.73	.23	7.59***			
	n4	1.73	.72	.23	7.53***			
	n5	2.31	.92	.28	8.17***			
	n6	2.37	.93	.29	8.20***			
	n7	1.97	.76	.26	7.71***			
	n8	2.12	.80	.27	7.85***			
무시당하는 기분	n9	1.00	.86			.80	.97	.80**
	n10	1.02	.88	.05	21.27***			
	n11	1.03	.87	.05	20.59***			
	n12	1.03	.89	.05	21.79***			
	n13	1.10	.93	.05	23.50***			
	n14	1.10	.92	.05	23.48***			
	n15	1.04	.89	.05	21.80***			
	n16	1.003	.89	.05	21.64***			
대인관계 충돌	n17	1.00	.71			.67	.91	.79**
	n18	1.05	.77	.08	12.91***			
	n19	1.08	.80	.08	13.41***			
	n20	1.26	.92	.08	15.25***			
	n21	1.12	.87	.08	14.54***			

**p<.01, ***p<.001

을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퍼빙경험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을 실시하였다. 퍼빙경험 척도의 AVE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5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퍼빙경험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각 문항과 타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퍼빙경험 척도를 구성하는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은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인을 통해 2개의 잠재변인을 설정하였고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퍼버 척도의 적합도는 X^2= 572.670, *TLI*=.925, *CFI*=.934, *RMSEA*=.084로 *RMSEA*가 다소 높지만 허용 가능한 값이며, 이러한 결과는 퍼버 척도의 구조모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중 100명에게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링크를 전달하였고 이 중 42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산출된 결과는 표6에 제시하였다. 퍼빙행동 척도(r = .89, p < .01)와 하위요인인 노모포비아(r = .87, p < .01), 대인관계충돌(r = .75, p < .01), 자기고립(r = .82, p < .01) 그리고 문제인식(r = .89,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퍼빙경험 척도(r = .79, p < .01)와 하위요인인 규범인식(r = .76, p < .01), 무시당하는 기분(r = .80, p < .01) 그리고 대인관계충돌(r = .79, p < .01)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다. Rosenthal과 DiMatteo(2001)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70 이상의 경우 매우 강한 상관이며 .50 이상일 경우는 강한 상관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요인에서 강한 상관 이상의 결과로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표 6).

타당도 검증

퍼빙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선행연구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파트너 퍼빙척도와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척도, 분열형성격장애척도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먼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Roberts 등(2016)이 파트너의 퍼빙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파트너 퍼빙척도를 이광열(2017)이 번역한 파트너 퍼빙척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57, p< .01). 더불어 4개의 하위요인에서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퍼빙행동 척도와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r= .76, p< .01). 또한 4개의 하위요인에서도 동일하게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중독 가능성을 시사하며, 스마트폰에 몰입함으로 나타나는 퍼빙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때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 역시 함께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열형성격장애척도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열형성격장애는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응이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이 퍼빙행동과 비슷한 행동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퍼빙행동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 변별된다. 즉 퍼빙행동의 대인관계, 자기고립, 문제인식의 특징은 분열형성격장애와 높은 상관이 예상되지만 노모포비아는 분열형성격장애와 낮은 상관이 나타나므로 변별이 되는 특징이 될

표 7. 퍼빙행동 및 퍼빙경험 척도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N=301)

	X^2	*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LLCI	ULCI
퍼빙행동	268.776	83	.924	.940	.086	,075	~ .098
퍼빙경험	572.670	185	.925	.934	.084	,076	~ .091

표 8. 퍼빙행동 척도의 타당도 분석 결과 (N=301)

타당도 관련척도	파트너 퍼빙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척도	분열형성격장애
퍼빙행동	.57**	.76**	.55**
노모포비아	.51**	.64**	.26**
대인관계 충돌(퍼빙)	.41**	.57**	.53**
자기고립	.44**	.59**	.58**
문제인식	.47**	.64**	.36**

*p<.05, **p<.01

표 9. 퍼빙경험 척도타당도 분석 결과 (N=301)

타당도 관련척도	사회적 유대감 척도		편집성
	사회적 유대	사회적 비유대감	
퍼빙경험	-.19**	.46**	.46**
문제인식	-.02	.23**	.28**
무시	-.30**	.48**	.45**
대인관계 충돌(퍼비)	-.20**	.45**	.44**

*p<.05, **p<.01

수 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퍼빙행동 척도의 하위인인 대인관계(r= .53, p< .01), 자기고립(r= .58, p< .01), 규범인식(r= .36, p< .01)는 분열형성격장애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지만 노모포비아(r= .26, p< .01)와는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퍼빙경험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 척도와 편집성 척도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먼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 척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비유대감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46, p< .05), 퍼빙경험 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r=.23, p< .01, r= .48, p< .01, r= .45, p< .01). 이러한 결과는 퍼비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적 단절감과 낮은 사회적 유대감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별타당

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와 퍼빙경험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낮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19, p< .01). 또한 퍼빙경험 척도의 하위요인인 규범인식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무시(r= -.30, p< .01)와 대인관계(r=-.20, p< .01)와도 낮은 부적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종합해 본다면 퍼빙행동 척도의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퍼빙경험 척도 역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가 구성개념을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 검증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따른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비교요인으로 성별, 연령, 직업,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용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설정하였고, 연령과 스마트폰 하루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퍼빙행동은 20대~40대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F=.241, NS), 퍼빙경험에서는 40대와 20대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 7.52, p< .01), 40대의 퍼빙경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퍼빙행동의 차이도 유의하였으며, 7시간 이상, 4~7시간, 1~4시간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5.35, p< .01). 반면, 퍼빙경험에서는 사용시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

표 10. 퍼빙행동 척도, 퍼빙경험 척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차이(N=301)

	인구통계학적 요인		평균(표준편차)	scheffe	F
퍼빙행동 척도	연령	20대	3.28(1.03)	-	.241
		30대	3.37(1.17)		
		40대	3.27(1.10)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a)	2.45	c - b = .42* d - b = .55*	5.35**
		1~4시간(b)	3.04		
		4~7시간(c)	3.46		
		7시간 이상(d)	3.59		
퍼빙경험 척도	연령	20대(a)	3.50(1.09)	c - a = .58*	7.52**
		30대(b)	3.84(1.10)		
		40대(c)	4.07(1.06)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4.46	-	1.01
		1~4시간	3.66		
		4~7시간	3.81		
		7시간 이상	3.88		

* p < .05, ** p < .01

았다(F= 1.01, *NS*). 퍼빙행동의 하위요인과 사용 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모포비아와 문제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6.95, p< .001, F= 6.46, p< .001). 한편 성별, 직업, 스마트폰 사용용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소통하는 관계 등의 변인에서는 퍼빙경험 척도와 퍼빙행동 척도 모두 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는 퍼빙을 측정하기 위한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의 GSP, GSBP척도를 번안하고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척도를 번역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내적합치도,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퍼빙척도는 퍼빙행동과 퍼빙경험의 두 척도로 구성하였다. 퍼빙행동 척도는 4가지 요인에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은 노모포비아 4문항, 대인관계충돌 4문항, 자기고립 4문항, 문제인식 3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척도의 원저자인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퍼빙경험 척도는 최종 선정 3가지 하위요인에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규범인식 8문항, 무시당하는 기분 8문항, 대인관계 충돌 5문항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은 원저자가 개발하고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항분석 과정에서 퍼빙경험 척도의 1번 문항('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의 새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 같다')의 상관이 .27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최종 문항에서 제거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고 단순히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게임, 쇼핑, 커뮤니티,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넓어졌다.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특정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낮은 상관이 나타난 1번 문항을 삭제하여 퍼빙경험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퍼빙행동 척도는 터키에서도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Yam & Kumcağız, 2020), 4개의 요인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퍼빙의 개념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에서 동일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퍼빙 개념의 명확성을 보여준다.

둘째,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산출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준거타당도는 국내에서 이광열(2017)이 번안하여 사용한 파트너 퍼빙척도와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4개의 하위 요인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보고되었으며, 4개의 하위요인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퍼빙행동과 연관있다는 이전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Kuss & Griffiths, 2011; Przybylski & Weinstein, 2013).

또한, 퍼빙행동은 스마트폰을 통해 SNS, 소셜 메시지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중독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aradağ et al., 2016).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과의 상관 분석 결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 요인에서도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래 두 척도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퍼버의 퍼빙행동과 분열형 성격장애는 대인관계를 피하려는 점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개념적으로는 퍼버의 퍼빙행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열형 성격장애의 대인관계 회피와 다르다. 하지만 퍼빙경험 척도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와 자기고립 문항은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열형 성격장애와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노모포비아와 문제인식의 경우 스마트폰과 자신의 퍼빙행동을 인식하는 문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열형 성격장애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행동보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회피를 측정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수준을 측정하기보다 퍼빙행동을 측정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8).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상관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는 분열형 성격을 비롯한 대인관계 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퍼빙 행동을 대인관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헤드폰을 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본래의 개념은 다르지만 퍼빙행동을 사회적 상호작용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퍼빙경험 척도로 선정된 21개의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에서도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비유대감은 퍼빙경험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퍼빙경험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휴대전화가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감과 대화의 질에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Przybylski & Weinstein, 2013).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와의 상관분석에서는 낮은 부적 상관이 나타나서 퍼빙경험은 사회적 유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셋째, 신뢰도 분석 결과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는 모두 높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각 척도별 하위요인에서 양호한 내적 합치도가 산출되었으며, 검사-재검사 결과에서도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각 척도와 소척도들이 구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성개념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분석 결과의 적절성은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가 신뢰성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 점수의 차이는 연령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에서 일부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석을 보면, 퍼빙행동은 나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퍼빙경험은 나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40대가 20대에 비

해 퍼빙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퍼빙행동을 하는 정도는 비슷한데, 퍼빙행동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40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20대는 40대보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적극적인 특성이 있으며(Deal, Altman & Rogerberg, 2010), 특히 현재의 20대는 어릴 적부터 다양한 기술에 노출되어 자신의 삶, 직장생활 및 사고방식에 있어 스마트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Huock, 2011). 대인관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20대는 좀 더 수용도가 높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자신도 그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Marks & Miller, 1987),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으로 판단하게 된다(Ross, Amabile & Steinmetz, 1977). 즉, 20대들에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사용시간의 경우 1시간 미만을 제외한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퍼빙행동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퍼빙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결과 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나용선, 2013; 조규영, 김윤희, 2014), 퍼빙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관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퍼빙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Chotpitayasunondh & Douglas, 2016).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중독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퍼빙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급격한 ICT의 변화를 경험하며 기술의 수용 및 이용에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20대~40대의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표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대상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Purcell, 2011).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높은 수준에 속해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더 편히 여기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에 있어 스마트폰이 하나의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서지혜, 2012).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은 실제 생활에서의 대인 관계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단절시킬 수 있어 청소년기에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들에게서 퍼빙 행동이 만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양연지, 김기옥, 2020),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판 퍼빙척도의 연령대별 규준을 형성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연령별로 스마트폰을 이용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일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및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김문조, 2014), 세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고려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규준을 형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척도가 한정적이다. 연구 참가자들의 많은 문항을 수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도를 고려하여 문항 수를 조절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척도들과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퍼빙 행동 척도의 경우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SNS 사용동기 척도,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 등을 사용하여 본 척도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관련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군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퍼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소셜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등과 같은 스마트폰 관련 중독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표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있는 임상군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임상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위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퍼빙행동 및 퍼빙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 한 점에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퍼빙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도 대화 중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모습은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전 퍼빙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국외의 척도들을 단순 번안 및 수정을 하여 사용하여 제한점이 있었다(이광렬, 2017). 이러한 점에서 퍼빙 행동 척도와 퍼빙 경험 척도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며 추후 새로운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제를 겪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을 하였다. 이와 달리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를 퍼버와 퍼비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어 자신의 대인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상담에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대인관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교육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두 가지 퍼빙행동 척도와 퍼빙경험 척도를 통하여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인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석기 (2005).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 관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6(1), 165-193.

금희조, 조재호 (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 참여: 소셜 미디어 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48-371.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 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김문조 (2014).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유별난 모습들: 스마트폰 중독. 지식의 지평 17, 40-56.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나용선 (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17(3), 31-53.

박성복, 황하성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4), 289-311.

박은숙 (2009). 인터넷 중독 성향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연구, 9(1), 1-35.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도서출판: 청람.

서경현, 조성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서지혜 (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 동기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연지, 김기옥 (2020). Z 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스마트폰활용패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소비자학연구, 31(4), 159-182.

윤선아 (2010). 한국판 분열형 성격장애 척도-단축형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Brief SPQB) 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491-504.

윤지현, 박근희, 홍혜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휴대전화 의존의 종단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7(7), 1-22.

이광열 (2017). 스마트폰 이용 행태 및 미디어 멀티태스킹 동기가 퍼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만제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성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1), 201-211.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5 학술대회 자료집, 277-290.

조규영, 김윤희 (2014).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15(3), 1632-1640.

주석진, 조성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97-11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KISDI STAT Report. 서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홍구표 (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34-67.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10), 365-375.

Abeele, M. M. V., Antheunis, M. L., & Schouten, A. P. (2016). The effect of mobile messaging during a convers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and interaction qu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2*, 562-569.

Bian M, Leung L. (2015) Linking loneliness, shynes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and patterns of smartphone use to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61-79.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Campbell, J. (2008).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Vol. 1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6). How "phubbing" becomes the norm: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nubbing via smartphon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3,* 9-18.

Chotpitayasunondh, V., & Douglas, K. M. (2018). Measuring phone snubbing behavi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Generic Scale of Phubbing (GSP) and the Generic Scale of Being Phubbed (GSBP).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8*, 5-17.

Deal, J. J., Altman, D. G., & Rogelberg, S. G. (2010). Millennials at work: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do (if anything).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5(2), 191-199.

Elhai, J. D., Levine, J. C., Alghraibeh, A. M., Alafnan, A. A., Aldraiweesh, A. A., & Hall, B. J. (2018). Fear of missing out: Testing relationships with negative affectivity, online social engagement, and problematic smartphon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9,* 289-298.

Elhai, J. D., Dvorak, R. D., Levine, J. C., & Hall, B. J. (2017).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conceptual overview and systematic review of relation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7, 251-259.

Fenigstein, A., & Va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1), 129-138.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28-388.

Hershatter, A., & Epstein, M. (2010). Millennials and the world of work: A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5*(2), 211-223.

Houck, C. (2011). Multigenerational and virtual: How do we build a mentoring program for today's workforce?. *Performance Improvement, 50*(2), 25-30.

Kalogeropoulos, A., Suiter, J., Udris, L., & Eisenegger, M. (2019). News media trust and news consumption: Factors related to trust in news in 35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3,* 3672-3693.

Karadağ, E., Tosuntaş, Ş. B., Erzen, E., Duru, P., Bostan, N., Şahin, B. M., & Babadağ, B. (2016). The virtual world's current addiction: Phubbing. Addicta: *The Turkish Journal on Addictions, 3*(2), 250-269.

Karadağ, E., Tosuntaş, Ş. B., Erzen, E., Duru, P., Bostan, N., Şahin, B. M., ... & Babadağ, B. (2015). Determinants of phubbing, which is the sum of many virtual addiction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60-74.

Katz, J. E., & Aakhus, M. (2002). *Perpetual contact: Mobile communication, private talk, publ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Krasnova, H., Abramova, O., Notter, I., & Baumann, A. (2016). *Why phubbing is toxic for your relationship: understanding the role of smartphone jealousy among "Generation Y" users*. Twenty-Fourth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ECIS), İstanbul, Turkey.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Kwon, M., Lee, J. Y., Won, W. Y., Park, J. W., Min, J. A., Hahn, C., Gu, X., Choi, J. H., Kim, D. J.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martphone Addiction Scale (SAS). *PLOS one, 8*(2), e56936.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Marks, G., & Miller, N. (1987). Ten years of research on the false-consensus effec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2*(1), 72-90.

McDaniel, B. T., & Coyne, S. (2016). Technology interference i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mother's perceptions of coparenting.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4), 435-443.

Nakamura, T. (2015). The action of looking at a mobile phone display as nonverbal behavior/communic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68-75.

Park, N., Kim, Y. C., Shon, H. Y., & Shim, H. (2013).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use and dependency in South Kore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4), 1763-1770.

Przybylski, A. K., & Weinstein, N. (2013). Can you connect with me now? How the presence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fluences face-to-face conversation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3), 237-246.

Purcell, K. (2011). *Half of adult cell phone owners have apps on their phones,* Washington, DC: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Raine, A., & Benishay, D. (1995). The SPQ-B: A brief screening instrument for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9*(4), 346-355.

Roberts, J. A., & David, M. E. (2016). My life has become a major distraction from my cell phone: Partner phubb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romantic partn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34-141.

Rosenthal, R., & DiMatteo, M. R. (2001). Meta-analysis: Recent development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literature review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59-82.

Ross, L. D., Amabile, T. M., & Steinmetz, J. L. (1977). Social roles, social control, and biases in social-perception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7), 485-494.

Smith, A., McGeeney, K., Duggan, M. (2015). *US smartphone use in 2015.*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s://www.pewresearch.org/internet/2015/04/01/us-smartphone-use-in-2015.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Wang, X., Xie, X., Wang, Y., Wang, P., & Lei, L. (2017). Partner phubb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hinese adults: The role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leng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0,* 12-17.

Yam, F. C., & Kumcağız, H. (2020). Adaptation of general phubbing scale to Turkish culture and investigation of phubbing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various variables. *Addicta: The Turkish Journal on Addictions, 7*(1), 48-60.

1차 원고접수 : 2021. 10. 27.
수정원고접수 : 2022. 03. 06.
최종게재결정 : 2022. 04. 30.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1, 15-40
DOI: 10.22839/adp.2022.11.1.15

Validation of the Korean Phubbing Scale (PS-K)

Minbeom Kim
Dep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Jaegwang Choi
Dep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Wonyoung Song
Dep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is conducted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General Scale of Pubbing and General Scale of being Phubbed developed by Chotpitayasunondh and Douglas(2018). Phubbing behavior is ignoring other people using the smartphone during interactions with others. In the first study, data from 136 adults in their 20s to 40s in Korea were collecte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ere adapted. In the second study, 301 data were used to analyze confirmatory factors and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GSP consisted of a total of 15 items, 4-factors structure(nomophobia, interpersonal conflict, self-isolation, and problem recognition). and KGSBP consisted of a total of 21 items, 3-factor structure(norm recognition, ignored mood, interpersonal conflict). In addition, the internal consistency of KGSP and KGSBP was good (KGSP full Scale α = .92, The sub-factor α =.80, KGSBP full scale α= .95, sub-factor α=.91~.97).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KGS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partner phubbing scale, 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 and Schizotyp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addition, KGSBP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and Paranoid scal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demographic facto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GSP score according to the smartphone usage time,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GSBP score according to smartphone usage age. in conclusion, KGSP and KGSBP can be used reliably and reasonably in measuring phubbing behavior, which is an interpersonal problem caused by a smartphone. In addition, the valid scale will be used as a measure of new social phenomena and contribute to the study of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smartphones.

Key words: phubbing, phubbie, smartphone addiction, interpersonal problem, scale validation